

광주시, 동행축제 연계 지역상권 살리기 '총력'



광주상생카드 소비촉진 이벤트·공공배달앱 할인행사 등 양동통맥축제·충장라온페스타 등 지역축제와 동시 운영

광주시가 소비 위축으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 진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광주시는 2026년 상반기 동행축제(4월 11일~5월 10일) 기간에 맞춰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전

국 단위 캠페인으로, 최근 중등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우선 지역 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이벤트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다음달 10일까지 광주은행과 협력해 '광주상생카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 행사 기간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도록 했다. 6월 중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광주상생카드(5만원권 100명, 3만원권 500명)를 지급할 예정이다. 비대면 소비 흐름에 맞춘 온라인 판촉도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공배달앱 뽕겨요와 위메프를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이용자 7000명에게 3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높인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확대도 병행한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광주를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축제 기간

동안 확대 운영하며, 13개 업체가 참여해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판매와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라이브커머스도 추진해 현장성과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잡는다는 전략이다.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지역 상권의 체감도를 높일 축제들이 잇따라 열린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양동통맥축제가 양동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24일에는 남광주시장 불바다~야(夜)축제가 이어진다. 다음달 2일에는 충장라온페스타, 10일에는 1913송정역시장에서 난장콘서트가 열리며 지역 전반에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

킬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번 동행축제를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화폐 사용 확대와 디지털 판로 구축, 현장 축제 활성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영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동행축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유익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상생카드 사용과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용 기자 photo25@

종전 협상 결렬에도 코스피 5800선 사수 개미 7400억 순매수 지수 하단 방어...코스닥 상승 전환

코스피가 13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결렬에도 5800선을 지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25p(0.86%) 하락한 5808.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1.59p(2.08%) 내린 5737.28로 출발해 5730.23까지 내렸으나 장중 낙폭을 줄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89.3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97억원, 705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나 홀로 747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3630억원 매도 우위였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미-이란 종전 협상 경계심에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현지시간 지난 1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9.23p(0.56%) 내린 4만 7916.57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7.77p(0.11%) 밀린 6816.89, 나스닥 종합지수는 80.48p(0.35%) 오른 2만 2902.89에 장을 마쳤다. 첫 종전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란 핵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결렬됐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파키스탄 현지시간 12일 오전 6시 30분께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는 미-이란 종전 협상 결렬에 따른 불안감으로 하락했으나 장중 일부 주도주가 반등하며 낙폭을 축소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21p(0.57%) 상승한 1099.8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6.78p(1.53%) 내린 1076.85로 시작했으나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13일 서울 증권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홍보)

금융위, 미·이란 협상 결렬에 비상회의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도 '필요시 즉각 확대'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결렬에 경제 관련 불확실성이 엄중하다고 평가하며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필요시 즉각 확대하고,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 부문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미·이란 종전협상 결렬에 따른 금융시장 위협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후속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는 하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현재 가능한 금융 부문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TF 산하 금융시장반대 시장동향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적이고 과

감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9일까지 2조5000억원이 집행된 '채권·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실무지원반에는 민생·실물경제 현장의 긴급한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추경으로 지원 규모가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권의 '53조원+α' 지원 상황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협조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또 산업현장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요 산업 부문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개최한 건설업 및 정유·석유화학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중구 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농협, 주유소 경쟁력 강화...에너지사업 체질 개선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정기총회...지속성장 기반 구축 논의
농협중앙회는 최근 서울 중구 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농협주유소 선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

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황성오 농협주유소 선도협회회장(영남

삼호농협 조합장) 등 전국 220여명의 조합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NH-OIL, 농협주유소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유류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중등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기조 지속 등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논의가 집중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에너지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6개 핵심 과제를 담은 '2026년 주요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유류사업 지원 확대와 사업 구조 다각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등이다. 이송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조합장협의회 "농협법 개정안, 자율성 훼손 우려"

농협법 개혁 건의문 채택 현장 의견 수렴 선행 촉구

광주시농협 조합운영협의회는 13일 농협 광주본부에서 조합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 과정에서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와 헌법적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최근 개정안이 자칫 농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조합장들은 "농협은 농민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으로 헌법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역시 자율과 독립, 민주적 관리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드러난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히 인식하면서도, 지난날 11일 발의된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외부 법인으로 분리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점,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을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정부의



광주시농협 조합운영협의회는 13일 농협 광주본부에서 조합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 과정에서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직접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관치 중심 구조로의 회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입법 과정에서도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민인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명열 협의회장(서창농협 조합장)은 "농협 개혁 법안이 국회와 정부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는 데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실효를 올릴 수 있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송용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30일까지 연장...캐시백 확대

농협중앙회가 중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 속에서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4월 8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유가 장기화로 생산비 압박이 커진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국 농협주유소(판매소 포함)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상 유종은 경유·등유·휘발유로, 총 25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실제 구매 물량에 따라 사후 지급된다. 다만 어업용·임업용 면세유와 중유, LPG, 부생연료 1·2호, 윤활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은 유류비 절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대상 혜택도 확대했다. 농협주유소에서만 시행하던 '주유 캐시백 프로모션'을 지난 11일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에 넓혔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며, NH농협카드도 건당 3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리터당 50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행사 기간 중 최대 1만원까지, 월 기준 5000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송용 기자 photo25@